

朝鮮後期 書院의 院任 組織과 尋院人士(下)

- 現 慶尙南道 地域을 中心으로 -

姜 祥 澤*

[The Wonim(院任)'S Organization of the Sewon and
the Visitors in the late of ChoSun-Dynasty]. II

<目 次>

- I. 머리말
- II. 各 地域 書院의 院任組織
 - 1. 德淵書院 3. 禮林書院
 - 2. 泰巖書院 4. 鷗江書院
- III. 地域 鄉儒 및 尋院人士
- IV. 맺음말

I. 머리말

朝鮮後期 社會를 政治的 背景에서 살펴볼때 在郷地主 勢力으로서의 基盤을 가지
고 性理學的 理論을 수용하였던 士林세력들이 政治的 主導權을 장악하면서 나타난
朋黨의 對立構造로 이해되고 있다. 宣祖朝에 이루어진 朋黨政治는 顯宗朝에서 肅宗
朝에 걸쳐 中央政界 進出과 政治的 主導權 장악에 실질적 影響力을 행사할 수 있었
고, 地域 士林들의 公論을 集結할 수 있었던 書院은 黨色과 연결되어 建立되었다.
이렇게볼때 실제 朝鮮後期 社會 構造 속에서 書院의 역할은 커다란 比重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같이 地域士林들과 연관된 書院을 中心으로 이루어지는 公論을 바탕으로한 朋
黨政治는 政治體制가 一黨, 一族 중심으로 정립되어 감에따라 政治圈에서 배제된
他 朋黨과 政治圈에 참여된 朋黨이라 할지라도 政治參與의 폭이 줄어들어 執權兩
班 階層과 沒落兩班 階層을 형성케 하여 書院이 가지는 本質的 機能이 變質되고 있
었다. 앞의 장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慶尙南道 地域의 書院은 朝鮮後期 社會의 政治
的 背景에서 나타나는 書院의 構造로 이해될 수 없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慶
尙右道 書院의 院任構造 및 人的構成이 정치성이 배제된 社會的 背景에서 書院의 建
立과 經營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換言한다면 慶尙右道の 書院은 南人係 書院이나 西人係 書院과 같이 地域 書院을

*한국해양대학교 교양과정부 부교수(한국사 전공)

중심으로 활동하던 士林들의 公論이 中央政界에 반영될 수 있었던 상황을 가지지 못한채 光海君朝를 거쳐 仁祖反正을 중심으로, 일찍 政界에서 排除 되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北人係 書院이라고 통칭되어 부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앞의 장에서 밝힌바 있는 濫溪書院이나 德川書院도 南冥學緣을 중심으로 書院의 건립과 경영이 이루어졌으며 光海君朝의 北人 執權期에도 書院을 중심으로한 地域 士林들의 公論이 中央政治와 크게 연관되어지지 못했고, 따라서 仁祖反正後 書院의 자구책으로 院任構造의 변화와 書院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中央政界의 高位 官僚가 원장으로 부임하는 등의 書院경영의 변화를 보았다.

이렇게 볼때 慶尙南道의 書院은 賜額書院 즉 配享者와 學緣을 바탕으로 한 地域士林에 의해서 건립된 書院과 仁祖反正後 地域 士林들에 의한 書院 또한 門中書院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賜額書院인 漆原의 德淵書院, 密陽의 禮林書院, 蔚山의 鷗江書院의 院任組織과 院任構造의 변천과정을 통해 朝鮮後期 書院이 차지하고 있었던 社會的 비중과 政治圈과의 연결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考察하고 宜寧地域의 門中書院인 泰巖書院의 院任組織의 형태와 書院의 經營構造를 밝혀 賜額書院과 비교분석하여 門中書院의 社會的 位置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慶尙南道 書院을 政治的 背景에서 보다 社會的 背景으로 이해할때 朝鮮後期 社會가 兩班門閥 社會였고 兩班門閥 社會의 기본적 요소인 兩班이란 社會적 特權層들이 그 地位를 계속적으로 보장받는 방법으로 書院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地域 鄉儒(士林), 各道의 鄉儒들의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地域 鄉儒들의 실태와 각 書院을 禮訪했던 尋院人士를 통해 朝鮮後期 鄉村 社會구조속에 鄉儒와 書院이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考察해 보고자 한다.

물론 鄉儒案이나 道儒案, 尋院錄이 慶尙南道 전체 書院의 資料가 아니며, 鄉儒案, 道儒案도 의령의 宜陽書院 건립과 관련된 자료이기 때문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鄉村社會構造를 理解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II. 各 地域書院의 院任組織

1. 德淵書院

德淵書院은 함안군 칠원면 용정리 양정동에 소재하는 愼齋 周世鵬을 獨享하는 書院으로 宣祖 辛卯年 (1591)에 地域 士林들의 發議로 桐材書院을 創建하였다가 宣祖 壬辰年(1592)에 兵亂으로 灰塵되고 顯宗庚子年 (1660)에 漆原面 南阜에 重建하여 南阜書院이라 하였다.¹⁾ 肅宗 丙辰年 (1676)에 德淵으로 賜額을 받아 高宗 戊辰年

(1868)에 樞軸 될 때까지 德淵書院으로 漆原 鄉士林들의 활동에 中추적 역할을 하였다. 書院 樞軸後 辛亥年(1911)에 德淵서당을 세워 지금 현재까지 東來鄭氏 門中과 周氏宗門에서 관리하고 있다.

奉享者 周世鵬은 「基先尙州人 自高曾之也 徒居江右之陝川 至先府君 又徙漆原遂僞漆原人」²⁾이라 한 바와 같이 漆原人으로서 中央政界로 진출하여 朝鮮조 書院의 시효를 열게 하였던 分임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원래 漆原縣의 土姓은 金, 尹, 丁氏였지만 朝鮮朝에 일부는 在京官人 이 되고 일부는 地域 士林으로 남았을 뿐이다.³⁾ 그러나 鎭원에 來住한 土族은 尙州周氏, 安東權氏, 昌原黃氏, 金海 裴氏 등이 있어 그 一門들이 영남의 士林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이는 德淵別祠(一名 德源書院)라고 불리는 鄉賢祠의 建立過程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⁴⁾ 이 鄉賢祠는 肅宗 戊寅年(1698)에 德淵書院 앞에 建立하여 盆城裴氏 靜谷, 尙州周氏 龜峯, 星州裴氏 栗里, 昌原黃氏 獨梧, 尙州周氏 守口 五先生을 配享하여 漆原 來姓들의 鄉村 在地勢力의 基盤을 구성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밝혀주는 資料로서는 德淵書院에 보관중인 慕賢契案 이다.⁵⁾ 이 契案의 序文에서 「五先生祠宇辛未撤院之後 鞠僞蕪草者二十有人異戊戌之冬五先君 創議重建全鄉士林齋誠同力設契鳩財名曰慕賢契」라고⁶⁾ 밝히고 있듯이 鄉賢祠 樞軸後 漆原 鄉村 在地土族들의 再結合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다음 표에서 在地土族들의 움직임의 實態를 파악할 수 있다.

〈표1〉 德淵書堂 慕賢契案

戊戌	尙州周	昌原黃	金海裴	光州安	玄風郭	長水李	密城朴	其他	總計
	107	78	56	37	15	18	13	69	393

위 契案의⁷⁾ 연대는 德淵書院 폐쇄後 高宗 戊辰年(1868) 以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면 高宗 2年(1898)에 作成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契案에 의하면 漆原의 土姓인 尹씨는 2명으로 나타나는 반면 來姓인 周, 黃, 裴氏가 契案 전체수의 61%를 차지하

1) 《漆原殿祠誌》 德淵書院 所藏

德淵書院은 周世鵬 獨享으로 나타난다.

2) 《慶尙南道與地集成》 漆原縣邑誌 碑板 참조.

3) 李樹健, 《앞의 책》 P.138 참조.

4) 《漆原殿祠誌》 鄉賢祠 建立背景 참조.

5) 이 慕賢契案은 修正本과 함께 二部가 保管되어 있는데 肅宗 以後부터의 記錄을 함께 修正 整理한 것으로 年代 推定은 1910年代에 作成된 것으로 생각된다.

6) 《慕賢契案》 序文, 德淵書院 所藏.

7) 《慕賢契案》 德淵書院 所藏

德淵書院 建立과 관련한 姓氏는 來姓인 周氏가, 黃氏, 裴氏 順으로 나타난다.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漆原 鄉村의 公論을 主導한 것은 來姓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德淵書院 院任組織을 살펴보면 肅宗 17(1691)~肅宗 43(1717)년에 걸쳐 작성된 都有司案에⁸⁾ 나타난 院任 組織은 堂長, 校任, 院任, 都有司, 掌議로 나타나고 있다. 德淵書院의 都有司案에 나타난 院任組織은 都有司의 薦望制度和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원래 薦望은 후보자 셋 가운데 하나를 推薦하는 三望制度 를⁹⁾ 말하는 것이다.

특히, 德淵書院의 都有司案은 漆原縣의 儒林公論과 관련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데 堂長, 校任이 參與하고 있음이 곧 그것이다. 書院의 主機能을 원활히하기 위해 補助 機能으로서 출발한 堂會의 역할은 鄉村社會에서의 그 權威와 影響力이 대단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慕賢契案에서 보여주듯이 漆原縣의 儒林公論은 德淵書院을 거점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대변해 준다.

따라서 당연히 堂長은¹⁰⁾ 書院의 園장이¹¹⁾ 맡게될 것이며 교임은 지역향교의 임원일 것이며 院任은 德淵書院의 公事員 또는 祭長 등이 참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堂會(儒會)는 書院 운영문제의 전반에 관한 議決을 위시하여 政治的 社會的 문제에 관한 在野 儒士들의 輿論을 환기하고 結集하며 公式化하는 거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 德淵書院의 都有司가 가지는 역할도 매우 클 것이라¹²⁾ 생각된다.

이 都有司案을 보면 肅宗 17年(1691)~肅宗 43年(1717)까지는 都有司만 薦望되고 있으며 1703, 1705, 1716, 1717年은 掌議가 推薦되고 있다. 都有司의 책임은 院中 大小事를 監檢하고 掌議는 院大小事를 評議한다면 실제 書院의 운영을 주관하는 職任이라고 생각된다.

漆原 鄉士林들의 公論과 관련하여 都有司案에 薦舉된 都有司 및 掌議의 名單을¹³⁾ 統計해 보면 다음과 같다.

8) 《德淵書院 都有司案》 德淵書院 所藏

院任錄은 없고 都有司案이 있는데 이 都有司案을 통하여 院任構造를 파악할 수 있다.

9) 丁淳睦, 《韓國書院教育制度研究》 P.129 堂會考 참조

德淵書院 都有司案에 나타난 薦望制度의 形態는 3名の 候補者를 推薦하여 都有司를 選任하고 있다.

10) 원래 堂長은 院務를 맡는 事務長格인 職位이나 여기서 堂長은 堂會의 長을 나타내는 의미로 받아 들여진다; 丁淳睦, 《앞의 책》 참조.

11) 李東歡, 〈韓國文教風俗史〉 《韓國文化史 大系》 高麗大 民族文化研究所 1971. PP.831 참조.

12) 《德淵書院 都有司案》

都有司는 院中 大小事를 監檢하는 役割을 하기 때문에 그 比重이 매우 큰 것이다.

13) 《德淵書院 都有司案》

都有司와 掌議는 3名을 薦하여 選任하고 있다.

〈표2〉 漆原 德淵書院 都有司案(薦된 都有司, 薦된 掌議)

姓氏	周	黃	裴	郭	李	尹	安	姜	朴	成	趙	기타	總計
都有司	15	15	14	8	2	4	9	2	2	2	3	2	78
掌議	3					3	1						7

이렇게 볼 때 漆原縣의 儒林들은 德淵書院을 중심으로 활동하였고 특히 周, 黃, 裴氏 등의 來姓에 의해 鄉權이 주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都有司案의 기록이 肅宗代의 것만 남아 있어 중앙정치권에서 파생되는 朋黨政治와 직접적인 관련을 지을 수 없으나 漆原殿祠誌의 鄉校에 관한 기록을 보면 金宏弼, 趙光祖, 李栗谷, 金長生, 金集, 宋俊吉, 金麟厚, 成渾, 宋時烈 등의 西人系人士들을 중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仁祖反正後 漆原縣 儒林들의 動向을 추정할 수 있다.

2) 泰巖書院

泰巖書院은 門中成員들이 主體가 되는 門中書院이다. 앞에서 본 勿溪書院과 같이 同族中の 先賢을 配享함으로써 鄉村社會內的 在地的 基盤을 구축해 갔던 書院이었다.

門中중심의 書院이가지는 특징은 同族內에서 學緣이나 政治的 立場에 따라 對立的 양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있으나 비교적 外部 즉 中央의 政治勢力과 紐帶 關係라든지 또 中央政治圈의 變化에 민감한 鄉士林이 主體가 되었던 書院과는 달리 同族相互간의 結集과 鄉士林들과의 交流를 통해 鄉村內에서 在地的 基盤을 구축해 갔던 門中중심의 전형적인 書院으로 생각된다.

泰巖書院을 建立한 主體는 潭陽田氏이며 正祖13年(1789) 慶尙南道 宜寧郡 龍德面 竹田洞에 田氏先賢 三隱(야은(田綠生), 뇌은(貴生), 경은(祖生)中 경은 田祖生을 獨享하는 書院으로¹⁴⁾ 건립되었다. 潭陽田氏의 宜寧 移居 과정은 명백하지 않으나 潭陽田氏世鑑의 副護軍公 墓碣銘에 「田氏之居自潭 累遷至于宜山 歷世綿廷竹軒之後 蕃其昌而」라고¹⁵⁾ 나타나는 기록을 통해 보면 高麗末에서 朝鮮初期를 거쳐 潭陽地域으로부터 全國으로 移居하여 朝鮮中後期에 각 지역의 來姓으로서 在地的 基盤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령 지역에서 담양전씨에 관한 姓氏의 기록은 邑誌를 통해서

14) 《泰巖書院 審院錄》 序文

「宜春之新德山下有泰巖書院即我文元公耕隱先生獨享之祠也」

15) 《潭陽田氏世鑑(全)》 副護軍公 墓謁銘

는 나타나지 않으며, 嶠南誌에만 本縣 姓氏中에 田氏가 나타난다.

宜寧 本縣의 土姓은 南, 沈, 余, 玉氏인데 田氏는 朝鮮中後期에 들어 來姓으로서 기반을 형성한 것 같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宜寧地域내에 있는 田氏門中의 墓所, 碑石, 庭祠 등의 史蹟 資料들을¹⁶⁾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書院명도 官찬 사료에는 나타나지 않고 교남지에만 보인다. 交南지의 작성연대가 늦기 때문에 泰巖書院이 朝鮮後期 鄉村社會에서 차지하고 있었던 비중은 그렇게 큰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祠孫들의 주도로 建立된 院, 祠들은 藏修의 기능보다 先賢奉事를 위한 家廟의 성격이 강한 것과 그 궤를 같이한다. 따라서 書院의 經營과 연관하여 書院의 任院 組織은 黨色을 가진 書院에 비해 鄉村內에서 오히려 地域, 道, 鄉儒들이 모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개방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泰巖書院에 配享된 耆賢인물의 성격과 院任構造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泰巖書院에 配享되고 있는 耕隱 田祖生은 高麗末 忠惠王때 벼슬한 性理學者로 알려져 있다. 慶北 永川에 있는 蘇溪書院 遺墟碑를 보면 「文元公耕隱田先生 麗代之醇儒也 士林設三院以享之 宜寧曰泰巖 結城曰龜山 永川曰蘇溪 而蘇溪則以新菘塘二公配焉 階先生門孫也」라¹⁷⁾ 하여 耕隱 田祖生은 지방 士林들에 의해 宜寧의 泰巖書院, 結城, 永川地域에서 配享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士林이란 각 地域의 田氏 門中 및 鄉村에서 재지적 기반을 가진 향인을 말함이며 특히 宜寧地域의 泰巖書院이 가지고 있는 鄉村社會에서의 在地的 基盤은 泰巖書院이 소장하고 있는 祇謁錄을¹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泰巖書院은 院任錄이 없어 院任構造의 변화는 파악할 수 없지만 祇謁錄이나 畚行 審帳 중에서 院任을 맡고 祇謁한 기록이나 전답의 기부 과정에 나타난 기록을 통하여 院任構造나 院任의 성격을 類推해 볼 수 있다.

泰巖書院의 院任構造는 泰巖書院 畚行審帳에¹⁹⁾ 院長(權)-掌議(田)-別有司(田)으로 나타난 기록을 통해 <院長-掌議-有司>체제로 書院이 運營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院任體制는 일반적으로 西人系書院으로 분류된 書院들의 院任體制이다. 그러나 泰巖書院은 來姓으로서 鄉村社會에서의 在地的基盤을 형성함과 동시에

16) 潭陽田氏 史蹟資料가 宜寧郡內 七谷面, 亭谷面, 大義面, 龍德面 등지에 널리 있음을 볼 때 宜寧地域의 土族으로서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蒿峰精舍 田有龍, 竹林精舍 田著國, 竹軒公墓 田潭, 雲菴公墓 田自新 등의 史蹟이 있다.

17) 《潭陽田氏世鑑(全)》 蘇溪書院 遺墟碑文

18) 泰巖書院의 祇謁錄은 正祖 15년부터 憲宗 때까지의 記錄이 二冊으로 泰巖書院에 所藏되어 있다.

19) 《泰巖書院 畚行審帳》은 泰巖書院의 經濟資料로서 院任構造도 살필 수 있다.

先賢奉事 라는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黨色이나 政治性과는 무관했을 것이다. 正祖 16年(1792)-純祖 26年(1828)까지의 祇謁錄을 통해서 院任들을 살펴보면 총 31명인데, 職任이 없고 後學, 後人들로서 構成되어 있다.

西人系書院으로 구분된 書院의 경우 정치성과 관련되어 있고 職任者도 「以谷鄉大夫之有賢德負士望者爲之」²⁰⁾ 하여 士林들로부터 推仰받는 자들로서 構成되는 것이 일반적인 例이다.

泰巖書院 祇謁錄에 나타나는 院任者들을 分析해 보면 總 31名中 田氏門中에서는 院任者가 2名 뿐이며 그외는 本貫이 丹城, 晉陽, 花山, 全義, 盆城 등으로 나타나는 他姓에 의해서 書院이 經營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泰巖書院은 門中書院으로 書院을 통하여 鄉士林들과 긴밀한 紐帶關係를 가지고 있었다고 본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후기 書院의 濫設現狀과 관련하여 各 地域마다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파악된다.

3. 禮林書院

禮林書院은 金宗直을 主享으로 하고 申季誠, 朴漢柱를 配享한 書院으로 現在 밀양읍 후사포리에 書院건물이 있다. 원래 密陽地方의 土姓은 朴, 孫, 卞, 金, 趙, 楊氏로서 특히 密陽 朴氏와 孫氏家門은 在地土族으로서 그 基盤이 확고하였다.²¹⁾ 즉 金宗直 父子가 善山地域으로부터 移居하기 前에 密陽地域은 이미 확고한 儒林의 질서가 정립되어 있었다고 보여진다. 金宗直의 外祖인 朴弘信(司帝監正)家와 朴漢柱(金宗直文人)家, 그리고 孫氏家의 族勢도 크게 번성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孫氏家의 文名이 높았던 孫比雲(左副承旨)과 金宗直은 同時代人으로 親交가 두터웠다.

密陽 土着 在地土族인 金宗直의 外家를 바탕으로 學問活動, 教育活動은 密陽을 中心으로 各 地域에 많은 士林을 배출하게 되었고 그 後學들과 密陽 鄉儒林들에 의해 金宗直을 제향하는 書院의 建立은 당연한 것이었다. 明宗丁卯(1567) 때 創建되었던 德城書院은 金宗直을 獨享하는 書院이었는데²²⁾ 宣祖 때 壬亂으로 絶享되었다가 15年後 1603年(宣祖 39年丙午)에 密陽 鄉士林들의 立議에 의해 復享이 이루어졌다.

이 때 士林의 代表인 孫起陽에²³⁾ 의해 院中節目이 制定되어 書院의 질서를 再定

20) 《石室書院學規》 참조.

21) 李樹健, 《앞의 책》 P.23 참조.

22) 《禮林書院誌》 帖畢齋 先生 行狀편

明宗 丁卯 (1567)年에 退溪先生이 金宗直의 德望과 明敎의 扶植에 公的이거니 立祠奉享함이 可하다 하여 密陽士林들에 의해 德陽書院이 建立되었다.

23) 《禮林書院誌》, 《慶尙南道與地集成》 密陽郡 人物篇

孫起陽:密城人(1559-1617), 鄭述 文人, 壬亂 때 倡儀하고 昌原府使, 光海君 때 官職辭

立하였다. 禮林書院의 院任構造는 院中節目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節目部分中 院任에 관한 것은 白雲洞書院 院規를 그대로 援用하고 있다. 「別擇業文信慎者一人爲院長 又擇一人爲貳 共主院事 主院者若遠則雖有誠之勢 不得常帶顧之必致荒廢源 以十里內人爲之可也」²⁴⁾라는 院規는 嶺南 南人系로 分類된 書院에서 그대로 통용되는 것과 같이 初期의 禮林書院 院任構造는 院長-院貳制와 他院任들은 十里內의 鄉中人事가 맡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⁵⁾

壬亂後 復享時에 참여한 鄉士林들의 성격을 분석 해 볼 때 鄭寒岡 文人들과 또 朴재우와 함께 倡義했던 향유림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었다.²⁶⁾ 이를 통해 볼 때 書院의 經營에 참여했던 鄉士林들의 성격은 南冥後學들과 退溪後學들로서 構成 되어져 있는 것 같다. 그러나 禮林書院은 官界에 進出하여 光海君條에 辭退하고 後學들을 지도했다는 士林의 대표였던 孫起陽을 통해서보면 中央정계의 政治的 변화와 크게 관련되어 나타나지 않으며 뚜렷한 당색없이 書院의 經營이 이루어지고 있는 특성을 지닌다고 보아야겠다.

進士 申國賓(景宗 4-正祖 23)이 鄉儒들에게 보낸 延請文에서²⁷⁾ 白鹿古例를 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시대의 변천에 따라 院中節目이 많은 변모를 가져온 것으로 파악된다. 禮林書院誌의 (書院規例>에 나타난 기록들을 보면 원임구조가 몇차례 변천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정확한 원임자료가 없어 파악하기 힘들으나 院長-院貳制度가 어떻게 변천해 갔는가의 형태를 보여주는 실례는 될 수 있을 것 같다. 먼저「學問과 操行이 誠慎한 자 2人을 擇定하여 院長과 副院長으로 삼아 院務를 主管토록 한다」²⁸⁾라고 한 規例는 副院長制의 신설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는 西人系 書院으로 구분된 華陽書院과 道峰書院에서 채택한 원임구조이다. 부원장제도는 당시의 정치적 성격과 관련하여 院長을 中央官僚가 맡았을 경우 副院長이 書院의 실질적 經營을 담당한다는 문제와 관련하여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禮林書院의 副院長制는 이와 같은 성격과는 달리 院貳制가 부원장으로 변

任, 學問에 專念, 密陽 孫氏 門中에서 七灘書院(密陽)에 配享되었다.

24) 《禮林書院誌》 孫起陽의 院中節目은 《海東雜錄》, 《大東野乘》, 《武陵續集》에 나타나는 白雲洞書院 院規와 같다.

25) 白雲洞書院 院規와 차이점은 「項以五里居人爲可也」가 「項以十里居人--」으로 五里의 거리내를 10리로 확대하고 있는 부분이다.

26) 《通諭德城書院復享文》

書院立議에 참여한 鄉士林들은 院任이나 書院經營에 참여한 人物로서 대다수가 密陽人으로 나타난다.

27) 《禮林書院誌》 延請文

「伏以本院卽三賢謁處之所朝家宜額之院也--中略 白鹿洞主古例敢請府府與情」

28) 《禮林書院誌》 書院規例.

천해 갔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는 같은 書院規例중 所任部分에서 원임구조가 많이 변하고 있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鄉院長 1人, 都有司 1人, 別有司 1人, 掌議 6인으로 書院의 院任구조가 많은 변화를 가져왔음을 알 수가 있다. 禮林書院은 밀양지역내 士林들의 공론을 주도하는 기구로서 配享인물의 성격을 통해서 미루어 본다면 退溪, 南冥 後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을 것이다.

書院의 원임구조 변화와 관련해서 본다면 仁祖反正後 「占畢齋金先生 行狀」末尾에 29) 「各官衙에 懸板되어 있던 先生의 題詠까지 떼어버리게 하니 文人 子弟들이 그 참화에 질려 先生의 遺文을 수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록은 인조반정후 慶尙南道 지역의 南冥계통의 士林들이 치루어내는 변화적 양상이며, 肅宗代에 들어와 김중직의 贈職復諡(領議政特贈)이 이루어지고 文忠公으로 賜諡되고 있음을 통해 30) 밀양지역 향사림들의 성격을 잘 나타내 준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원임구조의 변화도 시대적인 영향아래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타書院과 같이 중앙정치권의 변화에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이것은 예림書院의 院任構造 중 특색으로 나타나는 掌議 6人인데 他 書院이 가지는 掌議의 선출방법과 달리 本院에 參錄된 門中에서 책임자를 선정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地域 鄉士林 중심으로 書院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鷗江書院

鷗江書院은 蔚山地域 鄉士林들에 의해 鄭夢周와 李彦迪 두 儒賢을 배향하는 書院이다. 울산지역의 土姓은 朴, 金, 李, 睦, 吳, 尹, 文, 林으로 나타난다. 31) 이 가운데서도 후삼국시대 대호족인 朴允雄을 始祖로 하는 蔚山 朴氏와 高麗朝 戶長이었던 金氏, 朝鮮朝에 土族이 되었던 李氏가 蔚山을 대표하는 3 大土姓이었다. 또 朝鮮 太宗朝 濟州 안무사를 지낸 吳濟는 蔚山 吳氏였으며 나머지 土姓은 記錄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32)

한편 蔚山 李氏는 蔚山郡吏로 출사하여 世宗朝 同知中樞密院事를 역임한 李藝를 始祖로 하고 있었으나 이미 高麗後期에 一族이 上京從事 하였던 33) 가문이었다. 그

29) 仁祖 6년(戊辰; 1628年) 3月 後學 漢南安이 撰한 것이다.

30) 《肅宗實錄》 권9 肅宗 6年 2月 庚申條 및 권21 肅宗 15年 11月 己巳條, 《增補文獻備考》 권8 肅宗21年 4月 乙亥條.

31) 《新增東國輿地勝覽》 蔚山府條.

32) 李樹健, 《앞의 책》 P.41

이 研究에서 蔚山地域에 나타나지 않는 土姓은 모두 本貫이 改變된 것이라 하였다.

33) 《蔚山府邑誌》 人物條 李藝篇 참조.

후 李藝의 후손은 在地土族과 吏族으로 分化하였으며 朴氏와 함께 이 지역 호장직을 세습하면서 朝鮮中期 以來 울산 지역에서 사족화해나간 가문이었다. 蔚山金氏는 고려시대 이래 호장직을 세습하다가 고려중기에 土族이 된 一族이 全羅道 장성으로 移住하였고 그 後孫에 金麟厚가³⁴⁾ 나와 湖南 士林의 영수가 된 가문이었다.

이렇게 볼 때 울산지역은 조선초기까지 土族의 居住가 많이 나타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6世紀 以後부터는 沿海地域圈에 속한 울산은 海邑 또는 下道라 하여 차별시하였고 따라서 土族의 居住가 줄어들면서 在地土族들의 階層分化와 아울러 士林基盤이 미약해져 갔다. 그러나 조선초 이래 지역 鄉校를 중심으로 꾸준히 이어져 왔던 鄉士林 세력의 성장노력이 肅宗年間에 書院建立 문제로부터 그들의 노력이 현실적인 형태로 나타나고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鷗江書院이 건립되는 숙종연간은 書院의 濫設이 확대되는 時期로서 肅宗 1代에 건립된 院, 祠宇의 數는 143個所(전체의51.8 %)에 이르며 賜額의 數도 23個所(전체의 35.4 %)로³⁵⁾ 나타난다. 이는 17世紀 후반 庚申大黜陟(肅宗6; 1680)을 前後하여 朋黨政治가 극에 이룸에 따라 사림정치의 한계성이 심화되었던 시기로 본다. 이러한 시기에 蔚山鄉士林들은 자기세력의 부식 및 확대의 추세를 나타내는 현상으로 鷗江書院의 建立發議가 있었다고 생각되어진다.

이는 書院의 建立과 賜額을 받는 시기가 南人 執權期임을 감안할 때 南人系적 성격이 강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남인 몰락후 鷗江書院은 타書院과 같이 中央政治圈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지는 않는다. 그것은 울산지역의 鄉士林들은 蔚山鄉校를 중심으로 향촌의 공론을 집결시켜왔으며 書院도 향교와 동일한 방향에서 운영되어져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은 鷗江書院 院錄節目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다.

「校有籍 院有案 校興國學一體也 凡民俊秀皆入太學 故校有東西齋之額 院乃學校之支流也」³⁶⁾라 하여 향교에 登載된 사림은 書院에도 登載되고 또한 書院은 鄉校의 支流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鷗江書院의 院任조직은 鄉校의 校任組織과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나타난다고 보아야겠다. 이는 院錄節目에 「一雖入錄案院 教齋任及 獻官 一從青襟案出定事 一院校齋任則兩取首任 首任論議 出改事」라고³⁷⁾ 나타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34) 金麟厚 家門은 麗末에 上京從事하다가 全羅道 장성에 落鄉한 在地土族家門이었다. 그런데 金麟厚는 그 후 金安國, 奇大升 등과 私友관계를 맺은 人物로 湖南性理學의 二大人物 중 한 사람이다.

35) 朴珠, <朝鮮肅宗朝의 祠宇藍設에 대한 考察> 《韓國史論》 6, P.209 참조.

36) 《鷗江書院院錄案節目》

37) 《鷗江書院 院錄案節目》

따라서 鷗江書院의 초기 院任組織은 鷗江書院 考往錄의 記錄을 통해서 볼 때 「自今以往議定一院長一有司奉行」이라³⁸⁾ 하여 嶺南 남인계 書院으로 분류된 書院의 院任構造인 <院長-有司>제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鷗江書院 考往錄中 道儒案을 보면 肅宗11年 乙丑(1685)년까지는 <院長-有司-都有司-掌議>制度가 채택되고 있으며 英祖(戊申(1728)年)부터는 掌議 대신 公事員으로 변경된 院任構造가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他書院과 같이 당색과 관련하여 중앙정치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鷗江書院 자체가 鄉校와 병행하여 운영이 이루어졌으므로 점차 書院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원임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졌을 것이라 생각된다. 蔚山地域의 경우 他 書院들이 朋黨政治가 구현되면서 鄉校를 중심으로 성장해왔던 향유림들이 그들 세력의 집결지를 鄉校로부터 書院으로 옮겨 갔던데 비해 鷗江書院은 地域 鄉士林들에 의해 운영되는 書院인데도 향교를 중심으로하여 書院이 경영되고 있다는 점이 특색으로 들 수 있겠다. 그 이유는 원임과 교임은 모두 향안에 등재된 향유림들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鷗江書院의 경영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울산 향교의 유안을 분석 보면³⁹⁾ 유안에 수록된 성씨들은 거의 대부분 같은 時期의 鷗江書院 院錄에 동시에 오르고 있어 이들이 모두 蔚山地域 有力 士族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 有力家門의 儒案入錄者 數는 참여하는 姓氏의 擴大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金, 朴, 李, 徐, 裴氏가 압도적인 數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高, 楊, 柳, 蔣, 蔡, 崔氏가 새로이 入錄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보면 一鄉의 鄉權을 장악한기구로서 鄉校가 계속 主導權을 가지면서 儒林들의 集結處로서의 役活을 하고 있었다고 보아야겠다. 蔚山地域에서는 鄉校 및 院, 祠의 組織이 鄉校를 중심으로 하는 체제로서 가장 중심적인 鄉校가 마치 行政體系처럼 地域的인 境界를 지키고 그 안에 있는 各 院, 祠들에 대해 위계적인 통제를 하였다. 이렇게 볼 때 鷗江書院은 他地域의 書院과 대별해 볼 수 있는 특색을 지니고 있다 하겠다.

이상에서 볼 때 朝鮮中後期에 나타나는 書院은 藏修의 機能과 先賢奉事의 機能을 함께 하고 있었지만 中央政治 體制가 一黨중심으로 변화 하면서 朋黨政治로부터 배제된 各 黨派들은 自派의 정치적 입장을 강화 한다던지 또는 書院 經營과 관련하여 書院이 가지고 있는 特性이나 時代的 상황에 따라 院任組織의 變貌는 불가피한 現象으로 파악되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慶尙右道 書院의 경우 配享者의 學緣에 따라 黨色을 가진

38) 위와 같음.

39) 《蔚山鄉校儒案》

鷗江書院 院生 名簿가 당시 蔚山鄉校의 儒案의 一部에 불과하다.

書院으로 分類되기도 하며 또 그러한 書院들은 中央政治圈의 변화에 敏感하게 反應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書院의 內部組織인 院任構造가 時代의 變遷과 함께 변화를 가질 수 있었던 書院은 濫溪書院과 德川書院을 지적할 수 있다. 물론 이 두 書院은 南冥學緣을 가진 地域 士林들의 활동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北人系로 分類된 書院이지만 書院의 內部組織이나 經營, 또는 地域社會의 活動 전체가 北人이라는 뚜렷한 黨色에 의해 존재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仁祖反正後 德川書院이나 濫溪書院은 中央政界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던 이유는 書院의 建立과 運營이 南冥學緣을 중심으로 했던 地域 士林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德川書院의 경우 院任組織은 「院長-有司」體制로서 中央政界의 變化와 관계없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으며 院長은 時代的變化에 따라 地域 鄉士林 대신에 居京院長으로 대체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居京院長들은 中央의 高級官僚로서 親南人系 老論系 인사였다. 이는 時代的 變化에 따른 書院의 自求策으로 이해되며 특히 親南人系 인사의 院長 취임은 鄭述, 許穆 등의 南人系人士와 南명학연의 지역 사립들과의 오래전부터 관계가 유지되어 온 결과로 분석된다.

또한 동일한 晉州圈의 濫溪書院도 德川書院과 같이 南冥文徒들에 의해 建立된 書院으로서 己丑獄과 仁祖反正後 書院의 院任組織이 中央 政界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濫溪書院은 院任構造 變化와 새롭게 부임해 온 居京 院長(山長)의 性格이 西人系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濫溪書院의 配享人物인 鄭述 文人이었던 鄭蘊이 光海君朝에 殺弟事件의 부당함을 호소하다가 濟州道로 귀향간 인물이었다. 仁祖反正後 復職 되어 병자호란 때 西人系인 金尙憲과 함께 활동하였다. 이러한 관계로 본다면 仁祖反正後 濫溪書院의 院任組織이 西人系 書院으로 분류된 院任組織의 形態로 변모하고 있음은 配享人物의 성격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慶尙右道の 賜額書院으로 나타나는 德淵書院, 禮林書院, 鷗江書院의 院任構造는 地域的 特색이나 書院의 자체 經營 방침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濫溪, 德川書院과 같이 中央政界의 變化와 무관한 상태에서 書院이 經營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德淵書院은 慶尙右道の 書院이 가지는 一般的인 院任構造인 「院長-有司」制의 형태가 아닌 道有司-掌議 제도의 채택으로서 地域的 特색을 나타내고 있으며 禮林書院은 初期 「院長-院貳」制의 院任構造였다가 副院長制의 신설로 「院長-副院長-有司」體制로 발전해 갔다. 특히 禮林書院을 經營해 왔던 密陽 地域 士林들의 分布는 退溪文徒와 南冥文徒가 함께하고 있음을 볼 때 禮林書院의 院任構造 자체가 黨色에 의해 구성된 것이 아니라 地域的 特색이나 書院의 운영과 관련하여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蔚山地域의 鷗江書院은 書院의 建立과 賜額過程이 南人 執權期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院任構造는 南人系書院으로 분류된 書院들의 院任體制인 「院長-有司」제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蔚山地域은 타지역의 書院이 鄉校의 機能을 앞서 발전하고 있는데 비해 蔚山地域은 鄉校 및 院, 祠의 組織이 鄉校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鄉論이 鄉校를 중심으로 모여지고 시행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鷗江書院도 鄉校를 중심으로 經營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慶尙南道에 나타나는 未賜額 書院으로 이들 書院은 中央政治圈의 變化와 관계없이 內部組織이나 院任構造가 地域 書院이 가지는 특성에 따른 經營構造에 맞추어 구성되고 있었다. 이는 門中 中心으로 建立된 書院과 地域 鄉士林에 의해서 建立된 書院으로 나타나는데 代表的인 門中書院으로 알려진 勿溪書院은 昌寧 地域의 鄉論을 주도했던 書院으로 파악된다.

勿溪書院은 宗族集團의 相互結束과 相互保障을 위해 成氏 門中の 先賢들을 配享하며 門閥의 權威를 확립해 나가고 있었다. 院任構造는 「院長-有司」體制로서 書院의 經營이 地域士林의 참여가 있었다 해도 成氏門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던 代表的인 門中書院이었다.

이와 반대로 光山書院은 같은 昌寧地域에서 楊氏門中에 의해 建立된 書院이지만 楊氏가 昌寧地域에서 일찍 在地的 基盤을 형성하지 못한 門中으로서 土着 在地勢力인 成氏, 盧氏 등을 중심으로 한 地域士林들에 의해 建立과 運營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潭陽田氏의 門中書院인 宜寧地域의 泰巖書院도 光山書院과 같이 在地的 基盤을 늦게 형성했기 때문에 地域士林들에 의해 書院이 經營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다르게 地域士林들의 發議에 의해 建立된 淸溪書院은 配享人物(李大期, 全致遠, 李希顔)이 南冥文徒들로서 陝川地域의 南冥學緣을 가진 地域 사립들에 의해 書院의 經營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書院의 經營은 鄉士林, 道士林에 의해서 주도되었으나 仁祖反正後 수년 동안 居京郡守들에 의해 書院의 經營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時代的 變遷에 따라 配享人物의 後孫들이 향권의 주도권 문제를 두고 相互 반목 대립하였던 書院으로 各地域에서 발생하고 있었던 鄉權 對立의 단면을 보여주는 書院이었다.

이렇게 볼 때 慶尙南道 書院의 院任組織은 配享人物이 어떤 黨色을 가지고 있었다 해도 그 院任組織의 형태가 일률적으로 西人系, 北人系, 南人系, 書院으로 區分 지워질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書院의 院任組織은 地域的 특성과 書院自體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組織 體系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와 반대로 光山書院은 같은 昌寧地域에서 楊氏門中에 의해 建立된 書院이지만 楊氏가 昌寧地域에서 일찍 在地的 基盤을 형성하지 못한 門中으로서 土着 在地勢力인 成氏, 盧氏 등을 중심으로 한 地域士林들에 의해 建立과 運營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潭陽田氏의 門中書院인 宜寧地域의 泰巖書院도 光山書院과 같이 在地的 基盤을 늦게 형성했기 때문에 地域士林들에 의해 書院이 經營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다르게 地域士林들의 發議에 의해 建立된 淸溪書院은 配享人物(李大期, 全致遠, 李希顔)이 南冥文徒들로서 陝川地域의 南冥學緣을 가진 地域 사립들에 의해 書院의 經營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書院의 經營은 鄉士林, 道士林에 의해서 주도 되었으나 仁祖反正後 수년 동안 居京郡守들에 의해 書院의 經營이 이루어 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時代的 變遷에 따라 配享人物의 後孫들이 향권의 주도권 문제를 두고 相互 반목 대립하였던 書院으로 各地域에서 발생하고 있었던 鄉權 對立의 단면을 보여주는 書院이었다.

이렇게 볼 때 慶尙南道 書院의 院任組織은 配享人物이 어떤 黨色을 가지고 있었다 해도 그 院任組織의 형태가 일률적으로 西人系, 北人系, 南人系, 書院으로 區分 지워질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書院의 院任組織은 地域的 특성과 書院目體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組織 體系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地域鄉儒 및 尋院人士

1) 地域鄉儒

앞의 절에서 書院을 구성하는 人的 上層組織인 院任의 構造와 그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院任의 構造는 地域的特性이나 書院의 人的 構成員인 地域士林들의 성격에 따라 구성되며 配享人物의 黨色과 관련하여 院任組織이 구성되지 않음을 確認 할수있었다. 단지 配享人物의 學緣과 관련된士林들의 活動자체가 時代的 變化에 따라 規制 또는 統制되어 書院經營의 自救策으로 院任組織의 變化가 있어 왔음도 確認 할수있었다. 또한 地域 書院이 가지는 성격 즉 門中書院과 地域鄉士林들에 의해 建立된 書院은 그 院任構造 및 書院의 變化가 配享人物의 黨色이나 中央정치의 변화와 관계없이 書院의 內部組織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門中書院이라 할지라도 書院이 가지는 특성과 書院構造의 變化 등은 鄉士林들의 영향권 안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볼 때 書院과 이해 관계를 같이하는 鄉儒(院儒) 및 기타 尋院人事들은 書院의 經營 및 書院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朝鮮後期 書院의 院任 組織과 尋院人士(下)

가지며 또한 書院의 存立에 중요한 人的基盤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이다.

그러나 地域鄉儒의 實態에 대한 具體的인 資料가 보이지 않지만 哲宗 申酉年에 創建된 宜陽書院의 建立過程에 참여한 鄉儒, 道儒들의 實態를 파악할 수 있는 學稼亭契案(1860)이라는 資料가 있지만⁴⁰⁾ 時代的으로 떨어져 있으나 한 時代의 地域鄉儒들의 實態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표3〉 鄉儒案(哲宗 11年; 庚午 1860年)

姓氏/ 地域	宜寧 南	安東 權	全義 李	慶州 李	晉陽 姜	康津 安	碧珍 李	固城 李	昌寧 曹	草溪 鄭	昌寧 成	安岳 李
板谷	65											
新反		14	11							2		
世千			1		1							
唐洞					5							
享享								9				
上井									8			
修城					2							
玉洞					1							
栗谷					1							
杜谷										4		
桂峴											3	
立山						8						
中橋				3			1					
德山					2							
龜山						4						
五雲							5					6
來濟							2					
多峴												4
總計	65	14	12	3	12	12	8	9	8	6	3	10

위 〈표 3〉은 1860年(哲宗 11) 宜陽書院 創建을 위해 宜寧의 鄉土族들이 참여하고 있는 실태를 보여주는 鄉儒案이다. 宜陽書院은 生六臣의 한 사람이었고 金宗直의 文人이었던 秋江 南孝溫을 제향하였던 鄉祠宇를 書院으로 創建한 것이었다. 이 향사우는 仁祖 1年(1623)에 建立되어 宜寧 南氏 宗門에서 매년 제향해 오다가 哲宗 때 鄉士林들의 發議에⁴¹⁾ 의해 書院으로 建立되면서 秋溪(南振) 亞谷(南能翼)이 配享

40) 《學稼亭契案》 宜陽書院 所藏

學稼亭契案은 宜陽書院 建立을 目的으로 地域 鄉士林들의 參與를 나타낸 記錄으로서 契案內에 鄉儒案과 道儒案이 있다. 이는 時代的으로 뒤떨어 진 점은 있으나 鄉儒, 道儒의 實態를 파악할 수 있는 資料가 된다.

되었다. 鄉案이란 일반적으로 향촌사회에서 入錄者를 결성하여 鄉村내에서 지배층을 형성하고 吏民을 統制하며 賦役體系를 調整하기 위해 作成된 것이지만⁴²⁾ 宜陽書院이 保存하고 있는 學稼停契案의 鄉儒案은 단지 書院의 創建을 위한 鄉士林들의 조직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향유안에 나타난 향사림들은 어떤 형태이던지 書院의 조직과 운영에 관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院任과 書院의 院生, 또는 院生을 거치지 않았다 해도 書院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地域 鄉士林이라는 측면에서 宜寧地域社會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위 표에서 나타나는 板谷은 본래 宜寧南氏의 集團居住地로서 宜陽書院 創建의 주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宜陽書院은 門中書院임을 확인시켜 주는 實例가 될 수 있다. 그리고 宜寧地域의 土姓이 아닌 來姓으로서 이미 在地的 土族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安東權, 晉陽姜, 康鎭安, 昌寧趙氏들이 참여하여 書院의 임원조직이나 경영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는 「鄉社至祭先生爲比一鄉之公論 不畢以倡爲公家之重祀典」⁴³⁾이라는 기록을 통해서 宜陽書院의 創建은 一鄉의 公論보다 더 중대한 일이라 하여 鄉士林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의령지역의 향사림들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의령지역은 타지역과 달리 門中書院을 중심으로 地域 鄉士林들의 공론을 집결하고 있는 특색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書院의 創建이 純祖以後 哲宗代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⁴⁴⁾ 이는 肅宗以後 書院祠宇의 濫設期를 지나 肅宗 40년부터 英祖 17年 사이에 院, 祠宇에 대한 疊設 禁止令이 내려진⁴⁵⁾ 탓도 있겠지만 純祖以後에 創建된 書院의 配享人物이 가지는 성격과 관련하여 北人系나 南人系的 당색을 가졌을 경우 純祖以前에 書院建立이 容易하지 않았거나, 또 書院疊設禁止令에 의해 門中書院의 建立이 容易하지 않았던 경우를 포함해서 勢道政治가 시작되고 書院을 주축으로 하던 地域士林들의 公論과 政治權이 相互協助 關係를 기대치 않는 시기에 주로 門中 中心의 書院이 건립되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各地域 士林들은 그들의 지위나 권위를 강화해야 하는

41) 《宜陽書院創建記》에 나타난 記錄은 주로 南氏門中이 主體가 되고 地域, 道儒林들에 의해 書院建立이 發議 되고 있다.

42) 鄭勝謀, <앞의 논문> P.43

43) 《宜陽書院創建記》

44) 《嶠南誌》卷3 宜寧郡篇에 보면 漁江書院(純祖 庚辰), 落山書院(純祖 壬戌), 嶺淵書院(純祖 己酉), 陶溪書院(憲宗 丁未), 新溪書院(哲宗 辛酉), 宜陽書院(哲宗 庚申) 등으로 宜寧地域의 書院은 19世紀 初盤에 建立되고 있다.

45) 書院의 疊設禁止令에 관한 記錄은 《肅宗實錄》 권28, 肅宗 21年 6월 壬申條와 《英祖實錄》 권53, 英祖 17年 4월 壬寅條 의 많은 記錄에 나타난다.

朝鮮後期 書院의 院任 組織과 尋院人士(下)

필요로부터 書院의 창건에 열중하고 있었다고 보아야겠다. 관찬사료에 나타나는 書院의 창건은 감소 상태였지만 읍지를 통해서 나타나는 書院의 수는 증가의 상태였다. 이는 地域鄕士林들이 書院의 건립에 참여함으로써 향촌에서의 그들의 신분적 권위를 정립해 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위 <표 3> 에서 나타난 것은 宜寧의 在地士族들이 書院의 創建과 관련하여 書院을 중심으로 향촌내에서 신분의 보호를 꾀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각 지역의 道儒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道儒들은 他地域의 書院과 연결하면서 그들대로의 결속을 통해 향촌에서의 士類사회를 지탱하고자 했을 것이다.

다음은 의양書院 창건과 관련하여 의령지역을 중심으로 한 도유들의 참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道儒案이다.

<표 4> 道儒案

道儒案 姓氏別統計	姓氏	一善金	河東鄭	瑞興金	陝川李	玄風郭	順天朴	星山李	合計
		14	20	19	13	20	16	16	118
	姓氏 坡平尹	碧珍李	安東權	咸安趙	淸松沈	金海許	苞山郭		
		9	18	10	22	17	14	28	118
	姓氏 昌寧成	草溪鄭	上山金	咸平李	尙州周	晉陽姜	靈山申		
		19	15	10	17	24	14	14	113
	姓氏 麗興閔	光山金	南平文	晉州柳	盆城裴	光州盧			
		21	10	12	14	16	18		113
	總計								350

<姓氏別은 10명 以上된 姓氏만 統計하였다.>

道儒案 居住地別統計	地域	高靈	咸陽	達城	陝川	草溪	昌寧	慶州	咸安	晉州	丹城	合計
		51	22	20	137	30	74	12	63	24	7	363
	地域 固城	山淸	星州	玄風	淸道	昌原	靈山	安義	漆原			
		30	36	4	34	1	18	55	11	5		194
	地域 京城	京畿	忠淸	全羅								
		4	1	2	3							10
	總計											567

<표 4> 의 道儒案을 보면 宜寧 지역을 중심으로 晉州圈을 포함하여 尙州圈 慶州圈, 安東圈의 鄕儒들이 대거 참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尙州圈에 속하는 陝川地域의 道儒는 137명으로 全體 574名 중 24%를 차지하고 있다.

道儒들의 참여는 宜陽書院의 外廓 士林勢力의 움직임으로 보아 晉州圈(咸陽, 咸安, 晉州, 固城, 山淸, 漆原)이 180名, 尙州權(高寧, 陝川, 草溪, 星州)이 222名, 慶州

圈(昌寧, 慶州, 玄風, 淸道, 靈山)이 176名이며 安東圈 31名 京畿, 全羅, 忠淸이 10名으로 나타난다. 이를 토대로 의양書院을 분석해 보면 配享人物인 秋江(南孝溫) 秋槭(南振)는 시대적으로 당색과 전혀 무관하지만 壺谷(南能翼)은 宋時烈 문인으로서 서인계 인사였다. 그러나 의양書院의 건립시기가 이미 향촌 유림들과 중앙정부와의 연결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세도정치기로서 단지 사람들의 상호 보험적 입장에서 일향의 書院 창건에 참여를 통하여 身分的 階層的 構造를 더욱 확고히 하려는 목적과 이해관계를 같이한다고 보아야겠다.

이러한 입장은 安東圈지역의 鄉儒들이 達城地域 외에 한 地域도 참여가 없다는 것은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잘 알려주는 것이라 본다. 또한 道儒案에 20名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姓氏는 鄭, 郭, 趙, 成, 周氏로서 각 지역향촌내에서 사회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계층로 파악된다.

특히 도유안에 나타난 職役 分布를 보면 承旨 1, 參判 1, 議官 3, 敎理 1, 道士 1, 進士 4, 參奉 1, 主事 3, 郡守 2名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純祖以前 중앙정치권과의 이해 관계에서 참여한 것이 아니라 配享人物과의 後學, 後人 관계에서 참여하였으며, 다소의 經濟的 支援도 이루어지고 있었을것이다. 이는 職役을 가진 자의 生沒年代를 통해서 볼 때 거의가 1800(純祖)-1900(高宗)年代 안에서 활동한 사람으로 파악된다.

勢道政治期에 있어 官撰史料 상으로 書院의 건립수는 현격히 감소하고 있지만 勢道家門과 관계형성이 용이치 않은 일반 士族들은 鄉村에서의 勢力基盤을 가지기 위해 一鄉의 家門中心의 書院건립에 관여할 수밖에 없었고 書院의 경영에도 일익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본다.

2) 尋院人士

각 지역 사람들의 상호 보험적 집결체인 書院은 사람 상호간의 협동 연합의 체제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자치기구로 파악될 때 尋院錄에 나타난 인사들도 書院의 중요한 人的資源으로 남게 된다. 특히 지역 사람들에 의해 건립된 書院은 배향인물이나 지역사립의 당색에 따라 중앙정부의 정치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慶尙南道 지역의 경우 尋院人士의 자료가 남아 있는 書院은 門中 중심의 書院만이 尋院錄을 보존하고 있을 따름이다. 門中書院이라 할지라도 尋院錄에 登載된 인사들이 書院의 경영과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尋院錄이 保存된 書院은 昌寧(勿溪書院, 光山書院), 宜寧(泰巖書院)의 두지역에 3個書院중 물계書院의 경우를 分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는 書院의 경영과 직접간접으로 연결되면서 물계書院이 가지는 鄉村內에서의 위치를 짐작할수 있게 한다.

朝鮮後期 書院의 院任 組織과 尋院人士(下)

〈표5〉 勿溪書院 尋院錄(英祖 2(1726)-英祖 13(1737)
英祖 38(1762)-純祖 30(1830)

慶州圈	慶州	密陽	清道	蔚山	彦陽	梁山	大邱	慶山	昌寧	靈山	玄風	合計
禮訪者數		11	3		2		2			2	7	27
安東圈	安東	禮安	寧海	順興	盈德	永川	河陽	清松	仁同	義興	新寧	
禮訪者數				2		11		3	1		2	20
尙州圈	尙州	星州	軍威	善山	陝川	草溪	高靈	金山	開寧	咸昌	龍宮	
禮訪者數	8	12	3	2	3	8	1					37
晉州圈	晉州	金海	昌原	咸安	咸陽	固城	漆原	宜寧	三嘉	河東	鎭海	
禮訪者數	7	1	1	7	4	6	8	1	3		1	39
全國地域	京	京畿	忠清	全羅	江原	平安						
禮訪者數	7	6	9	13	1							36
總計												159

위 표5에 나타난 尋院錄은 英祖 2-英祖 13年の 記錄으로서 中央政治圈에서는 老,小論이 變化를 이루어 가고 있는 시기이다. 이러한 時期에 勿溪書院의 禮訪人士가 全地域에 걸쳐 고르게 分布되어 있음은 配享人物의 성격이 學緣과 관계될 때 南冥문인, 退溪문인, 栗谷문인 등으로 다양한 活動범위를 가진 先賢들이 配享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표에서 나타난 他地域 人士의 禮訪은 居京人士 7名, 忠清道가 9名, 全羅道가 13名, 京畿道가 6名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配享人物의 後孫들이 禮訪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진다.

成氏門中에서 配享하고 있는 人物中 成渾, 成運 등은 16世紀後半 波州를 中心으로 趙光祖의 學統을 이어 畿湖地方의 士族를 領導하였고 한편 在地勢力들은 士族과 吏族으로 分化하여 昌寧本邑 永川, 尙州, 密陽, 草溪 등지에 分布되어 在地士族으로서 그 基盤을 확고히 하고 있었다.⁴⁶⁾ 勿溪書院이 門中書院이면서도 地方官의 集中的 禮訪이 있었다는 것은 다음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46) 《勿溪書院扶助錄》에 나타난 現物寄附現況은 成氏 後孫과 外裔孫, 外裔 등이 書院의 重修나 經營에 필요한 經費를 提供하고 있다.

<표5-1> 勿溪書院 省墓錄(肅宗 壬午(1702)-英祖 乙未(1775))

職役	敬差官	觀察使	慶尙道事	巡營軍官	府使	郡守	縣監	合計
禮訪者數	2	2	1	2	4	6	16	29

<표5-2> 勿溪書院의 地域別 地方官의 禮訪

職役	地 域					
府使	仁同	密陽	梁山(2)	鎭海		
郡守	興海	草溪(2)	咸安	慶山		
縣監	昌寧(7)	居昌	玄風(2)	漆原(2)	南海(2)	固城

위 표의()는 交替된 地方官의 禮訪者數

위 표5-2 에서 나타나는 것은 隣近地域의 地方官의 禮防을 말해주는 것이다. 地方官의 도임차 書院의 방문 및 成氏門中の 墓所를 祇謁하는 것은 일반적인 예로 되어 있으며 그 範圍는 慶州圈을 비롯하여 現 慶尙南道 일원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위 표에서 나타나는 地方官의 記錄은 後裔, 外後裔로 표기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後裔로 표기된 경우는 成氏吏族들의 祇謁로 보이며 이들은 물계書院의 經營과 運營에 일익을 담당했을 것이며⁴⁷⁾ 成氏門中の 구심점이 되고 있는 勿溪書院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外後裔, 外裔孫으로 표기된 他姓 成氏들은 成氏와 당대에 직접적인 관계에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勿溪書院의 配享人物과 先賢들 사이의 관계에서 書院의 訪問 및 祇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慶尙道觀察使로서 省墓錄에 記錄된 李端錫(仁祖1623-肅宗1688)은 本貫이 全州이며 王族 敬명군 침의 後孫이다.⁴⁸⁾ 1678(肅宗 4年)에 祇謁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는데 外後裔로 표기되어 있다. 이는 先賢들과 配享人物과의 관계로부터 이루어진 關係라고 생각되어진다. 또한 趙泰億(肅宗 1-英祖 4)은 本貫이 陽州이며 趙泰九, 李光祚, 金日慶 등과 함께 辛壬土禍를 일으켜 老論을 제거하고 政權을 잡아 刑曹, 工曹, 戶曹判書를 거치고 1714年 英祖 즉위후 右議政, 左議政을 지낸 人物이다.⁴⁹⁾ 1721年(庚宗 6年) 慶尙道 觀察使時에 外裔孫으로 記錄되어 물계書院의 尋院錄과 省墓錄에 나

47) 《勿溪書院省墓錄》 참조.

48) 《勿溪書院省墓錄》 및 《嶺南人物考》 참조.

49) 《勿溪書院院長案》와 《嶺南人物考》 참조.

朝鮮後期 書院의 院任 組織과 尋院人士(下)

타나고 있으며 또한 初代 京院長을 役任하고 있음을 볼 때 李端錫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외 昌寧縣監으로 李坡, 李世會, 洪廷弼, 張植, 朴成衍도 모두 外裔孫으로 나타나며 草溪郡守 漁必函, 慶山郡守 尹相一, 密陽府使도 外裔孫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러한 地方官의 書院방문은 書院에서 소요되는 物質的 支援을 동반하고 있음은 당연한 일이며 書院소요의 各種 現物供與는 하나의 상식이 되어 있다고 보아야겠다.⁵⁰⁾ 이외에도 물계書院은 뚜렷한 당색이나 정치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인근지역의 지방관의 예방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知縣(李性淳, 洪景斗, 孫錫祉), 敬差官, 慶尙道事, 巡營軍官, 漢城參軍 등의 禮訪은 勿溪書院이 가지는 門中書院의 특성과 連繫되고 있다고 보아야겠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의 書院 보호책과 물계書院을 중심으로 한 鄉士林들의 통일된 鄉論과 成氏門中이 가지고 있는 방대한 종족의 권위를 나타내주는 것으로 이해되어진다.

<표 6> 光山書院 尋院錄 純祖 3.癸亥(1803)-純祖 19.己卯(1819)
純祖19.己卯(1819)-純祖 28.戊子(1821)

慶州圈	慶州	密陽	淸道	蔚山	彦陽	梁山	大邱	慶山	昌寧	靈山	玄風	合計
禮訪者數		8	3				1			8	11	31
安東圈	安東	禮安	寧海	順興	盈德	永川	河陽	淸松	仁同	義興	新寧	
禮訪者數	1					2			3		2	6
尙州圈	尙州	星州	軍威	善山	陝川	草溪	高靈	金山	開寧	咸昌	龍宮	
禮訪者數		6			13	26	11					56
晋州圈	晋州	金海	昌原	咸安	咸陽	固城	漆原	宜寧	三嘉	河東	鎭海	
禮訪者數	3			10	5		4	15	4			41
全國地域	京	京畿	忠淸	全羅	江原	平安						
禮訪者數		1	2	6		10						19
總計												153

50) 이는 地域 地方官의 赴任次 儀禮的 訪問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土着的 成氏門中의 先賢에 대한 예우로도 보여진다.

위 표 6은 純祖 癸亥(1803)-純祖 28 戊子(1821)년까지 光山書院의 禮訪者를 수록한 二卷의 尋院錄을 分析한 표이다. 光山書院의 建立年代가 正祖乙卯(1795)年 이지 만 現存하는 尋院錄은 純祖代의 것만 남아 있다. 이 시기는 세도정치기로서 地域 鄉士林의 공론과 정치문제와의 관계가 점차 격리되면서 향촌내에서의 鄉士林들은 그들 자신의 身分의 권위나 鄉村支配權을 위해 상호 집결의 장소로서 書院은 필요한 기구였다.

위 표에서 陝川(13), 草溪(26), 高靈(11), 咸安(10), 宜寧(15) 등지의 인근 지역 鄉士林들이 집중적으로 예방하고 있으며 慶州圈의 靈山, 玄風, 安東, 永川, 仁同을 빼면 대다수의 예방자는 現 慶尙南道 일원의 鄉士林들이라 할 수 있다. 尋院錄에 나타난 全體 禮訪者數는 647名이며 居住地가 표기된 鄉儒林의 數는 忠淸, 全羅, 江原, 京畿를 포함하여 143名으로 나타난다. 光山書院에 配享된 楊宜는 政治圈에서나, 또는 學緣을 통해서 一鄉에서 推仰받는 人物은 아닌 것 같다. 따라서 政治性이나 또는 특별한 黨色을 나타내지않는 門中書院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위에서 본 勿溪書院과는 달리 光山書院은 嶺南地域 全體에 걸친 鄉士林들의 禮訪이 있었다. 앞에서 본 물계書院이 昌寧의 土着勢力으로 同族部落을 형성하여 방대한 同族의 禮訪이 있었던 것과는 달리 光山書院은 오히려 鄉士林들에 의해 書院의 經營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尋院錄上에 나타나는 楊氏의 同族 禮訪數는 外後裔(11名), 外孫(2名), 後孫(7名)만이 書院을 禮訪하고 있음을 보아 楊氏 宗門과 地域 鄉士林에 의해 書院이 경영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尋院錄上에 나타난 尋院 人士中 昌寧土性으로 자리한 夏山後人으로 표기된 成氏(62名), 趙氏(14), 張氏(6), 昌寧後人으로 표기된 成氏(63名)의 數가 130名으로 나타나는 데 이들은 居住지 표기가 없어도 昌寧地域을 中心으로 한 土着 鄉士林으로 생각되어진다.

위 표에서 光山書院의 禮訪者中 門中(20名; 後孫, 外孫, 外後裔)과 後學(23名) 鄉後學(7名)을 빼면 全體 647名의 尋院人士中 總 597名이 後人이라 표기되어 있다. 後人이란 書院 配享人物과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鄉士林을 통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勿溪書院의 경우 後人이 全體 301名 中 74명(24%)으로 나타나지만 光山書院의 경우 92%로 나타나는 특색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仁祖反正과 戊申亂後 몰락해 갈 수밖에 없었던 慶尙南道 일원의 鄉村儒林들의 실상을 알려 주는 것이라 하겠다.

〈표 7〉 泰巖書院 尋院錄

正祖 14(1790)-哲宗 4(1853)

慶州圈	慶州	密陽	淸道	蔚山	彦陽	梁山	大邱	慶山	昌寧	靈山	玄風	合計
禮訪者		2	2	1			6		9	2	4	26
安東圈	安東	禮安	寧海	順興	盈德	永川	河陽	淸松	仁同	義興	新寧	合計
禮訪者	1		2			4	1		2			10
尙洲圈	尙州	星州	軍威	善山	陝川	草溪	高靈	金山	開寧	咸昌	龍宮	合計
禮訪者		4		2	8	1	1					16
晉州圈	晉州	金海	昌原	咸安	咸陽	固城	漆原	宜寧	三嘉	河東	鎭海	合計
禮訪者	8		1	17	14		2	2	8		2	54
京	京	忠淸	全羅	江原	京畿	平安						
禮訪者	3	1	23	7		1						35
總計												141

위 표 7은 正祖 14(1790)-哲宗 4(1853)년에 걸쳐 작성된 泰巖書院의 尋院錄이다. 泰巖書院은 田氏門中の 先賢들을 配享한 書院으로써 肅宗以後 英祖년간에 書院의 濫設과 有關한 禁壓措處가 完滿해지는 시기인 勢道政治期에 設立된 門中書院이다. 특히 宜寧地域은 勢道政治期에 다수의 門中書院이 建立되고 있었다.⁵¹⁾

泰巖書院은 全羅道 潭陽地域의 潭陽田氏의 一族이 宜寧地域으로 移居해와 在地土族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建立된 書院이다. 이 시기의 宜寧地域 鄉村 士林의 實態는 자신들의 尙반적 立場을 확대해야 하는 尙연성에서 書院의 建立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같은 門中書院이라 해도 그 地域의 土着的 土姓들이 建立한 書院일 경우는 配享人物이나 門中人士中 政界로 進出하였던지 또는 과거 上位의 官職을 소유했던 多數의 門中內의 人士만으로 鄉村내에서 그들의 세력과 尙촌의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泰巖書院과 같이 移居해온 門中書院일 경우 一般적인 家廟와 달리 地域의 尙士林, 또는 尙存書院의 門中들과 긴밀한 紐帶關係를 형성할 必要가 있었다. 따라

51) 慶尙南道地域의 경우 正祖-哲宗年刊에 建立된 書院의 수는 44個로서 尙찬사료에는 서원 尙립이 줄어들지만 邑誌上으로는 늘고 있다.

서 書院의 건립과 운영은 지역 사립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일반적 實例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泰巖書院의 경우 潭陽田氏 一族이 在地土族으로서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書院의 건립을 통해 他性集團과 교류가 가능해지는 正祖以後의 鄉村社會構造의 일반적 인 예에 따르고 있다고 보아야겠다. 또한 既存의 土着 鄉士林들도 이러한 書院의 經營에 참여함으로써 士林상호간의 결속을 마련할 수 있었고 移居 사족들도 이들의 交換體制에 進入하여 人的交流를 통해 鄉村 支配勢力으로서 재지적 기반을 가짐과 동시에 兩班으로서의 權威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본다.

이러한 일반적인 현상은 門中書院이 가지는 尋院人士들의 分布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泰巖書院의 경우 禮訪人士의 分布가 慶州, 安東, 尙州, 晉州圈에 골고루 分布되어 있음을 보아 地域 鄉士林들과 泰巖書院과의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의령을 중심으로 한 晉州圈이(54名)으로 가장 많은 禮訪을 보이며 咸安(17名), 咸陽(14名), 三嘉(8名), 昌寧(9名), 陝川(8名) 등의 집중적인 禮訪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당색을 가진 일반書院의 내방 인사와 같이 上位官職에 있는 政界의 人士가 禮訪해 오는 경우가 없는것은 門中書院이라는 점과 勢道政治期라는 時代的현상으로 파악되어진다. 이 時期(正祖-哲宗)에 禮訪한 本郡 地方官 으로서는 赴任次있는 常識的인 禮訪으로 趙鎭球, 洪樂妥, 李秉九 정도의 尋院이 있을 정도였다.

尋院錄은 2卷으로 集冊되어 있는데 禮訪人士의 數는 총 500名으로 集計된다. 그 중에 居住地가 명기된 禮訪인사는 106名으로 나타난다. 居住地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他 門中書院과 마찬가지로 本郡居住의 鄉士林일 것으로 생각된다. 禮訪人士中 地域鄉士林으로 推定되는 後人으로 표기된 수가 324名으로 나타나고 있음은 書院을 중심으로 그들의 세력을 集結하려는 時代的인 現狀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본다. 또한 後學의 경우는 117名이며 外後裔, 外孫으로 표기된 數는 17名이다. 위 표에서 全羅道地域의 禮訪 人士의 數가 23名이나 된다는 것은 泰巖書院이 門中書院임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게 볼 때 泰巖書院의 經營과 관련한 經濟的 負擔도 門中 人士들로부터 보내어지는 現物寄附에 의존하고 있었을 것이다.

또 後學의 數가 42名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泰巖書院이 藏修의 機能을 통해 院生을 배출한 경우로도 볼 수 있지만 이는 正祖-哲宗年間의 門中書院이 갖는 특성이 藏修의 機能보다 先賢奉事의 기능이 우선하고 있다는 점에서 推移해 볼때 대개가 配享人物과 後學의 관계에 놓여있는 경우로 생각되어진다.

泰巖書院 尋院錄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사항은 「密陽後人 朴光錄」⁵²⁾이라는 기록이 지워져 있고 그 옆에 「以常漢出身故墨削」이라는 이유를 밝힌 것을 발견할 수 있

52) 《泰巖書院尋院錄》의 記錄으로 나타난다.

다. 이는 18世紀 後半 鄉村社會에서 일반화되고 있는 新鄕의 등장으로 인한 身分階層간의 갈등으로 파악될 수 있다.⁵³⁾

일반적으로 양난후 조선왕조의 사회경제 변화 추세속에서 나타난 新鄕의 존재는 既存士族들의 鄕村支配權을 萎縮되게 하고 있었다. 이러한 新鄕들의 進出은 鄕廳, 鄕校를 통해서 쉽게 나타날 수 있지만 18世紀 후반 書院의 성격이 家門중심으로 전환되어 가면서 이들 新鄕의 防禁이 심한 상태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된다. 위에서 살펴본 尋院錄중에서 토착적 기반이 강한 물계書院의 경우는 이러한 현상을 찾아볼 수 없지만 泰巖書院의 경우 常漢의 尋院記錄이 나타나며 「尙州洪箕範」의 記錄도 「此人 過此之設可庸故墨削」이라 하여 지워져 있음을 볼 때 시대적으로 新鄕의 출현과 既存 鄕士林들과의 암투가 나타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으며, 이러한 尋院錄상에 나타나는 내용은 泰巖書院이 설립운영된 時期와 新鄕들이 그들의 상승된 신분 에 걸맞는 사회적 대우를 요구하는 時期와 일치하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사회적인 면모를 살필 수 있는 事例로 보아야겠다. 尋院錄에 나타나는 禮訪者는 書院의 경영과 書院의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겠다.

尋院錄의 경우 예방자의 留宿은 거의 일반화되어 있으며, 특히 泰巖書院의 경우 「晉州後人 姜錫仁 帶恩祇謁 下人三名馬一匹 食十二床」⁵⁴⁾이라는 기록은 留宿人員과 食事 提供의 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禮訪者가 書院의 經費一部를 부담했던 事例로 파악된다.

17世紀 以後 書院이 士林들의 政治, 社會的 활동에 구심점이 되고 있는 경우 所屬士林들의 個別的, 集團的 行動에 의한 物質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常例였다.⁵⁵⁾ 그러나 18世紀 後半의 書院이 門中書院化하면서 書院의 경영에 필요한 經濟的 支援을 門中の 後孫, 門中 인사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을 것이며, 地域士林들은 書院 禮訪時나 또 享禮時 일부의 經濟的 協助를 하였다는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書院 禮訪時 留宿의 경우가 일부의 經濟的 協助의 형태가 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IV. 맺음말

慶尙右道の 書院은 일반적으로 통칭되어지는 黨色의 區分에 의해서 書院의 建立과 經營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中央政界와 地方書院과의 관계가 밀착되는 時期는 朋黨의 初期段階를 지난 顯宗代 以後 名分論이 朋黨政治의 주류를 형성하는 時期부터 나타난다는 一般論에 의하지 않더라도 慶尙右道の 書院은 名分論이나 地

53) 李樹煥, 〈陶山書院 院任職疏通을 둘러싼 適庶間의 鄕權〉 《民族文化論叢》 12, P.115

54) 《泰巖書院尋院錄》

55) 李樹煥, 〈앞의 박사학위 논문〉 P.120 참조.

地域士林들의 公論을 집결하여 中央政治圈과의 연결을 시도할 수 있었던 時期가 짧았다는데 緣由한다. 南冥學緣을 중심으로 한 地域士林들의 활동자체는 光海君朝에 한정되어 있었고 仁祖 反正後 慶尙右道 士林들의 活動이 政治圈에서 배제되면서 書院의 役割은 鄉村社會를 이끌어 가는 地域士林들의 門閥과 家勢의 유지 또한 家門의 權威를 과시할 수 있는 機會를 提供하는 處所로 바뀌어 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본고에서 고찰되어진 德淵書院, 禮林書院, 鷗江書院이 모두 賜額書院 이면서도 西人係 書院이나 南人係 書院들이 가지는 朋黨的 성격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咸安郡의 德淵書院은 周世鵬을 獨享하는 書院으로서 漆原縣의 地域士林들에 의해 건립된 書院이었다. 德淵書院을 중심으로 漆原縣의 鄉論이 집결되어 漆原縣의 鄉村社會를 이끌어가는 主導的 역할을 하고 있었다. 地域士林의 分布가 尙州周, 昌原黃, 金海襄, 光州安 氏들로서 모두 土姓이 아닌 來姓들로서 德淵書院의 經營에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德淵書院의 建立이 南人執權期에 (肅宗:丙辰) 이루어졌다고 해서 德淵書院을 南人係성격으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德淵書院의 院任構造나 組織을 통해서 볼때, 黨色的 성격을 통해 中央政界와 연결되어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院任組織은 「院長-都有司-掌議」 체제라고 본다면 南人係 書院이 가지고 있는 「院長-有司」 制의 院任구조와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와같은 성격으로 密陽의 禮林書院 또한 金宗直을 祭享하는 書院으로서 密陽地域의 士林들에 의해 建立되었다. 禮林書院도 一般的으로 南人係書院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이 또한 黨色을 중심으로하여 書院의 經營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된다.

禮林書院의 復享時 참여했던 孫起陽外 地域士林들이 鄭寒岡 文人이라는 점에서 남인계로 분류되지만 壬亂中 곽재우와 함께 참여했던 鄉士林들의 성격을 분석해보면 鄭寒岡 文인과 南冥後學, 退溪後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때 一般的으로 南人係로 분류될수 있는 뚜렷한 黨色을 가지고 있지않은 書院으로 파악된다.

이는 그 院任構造가 초기[院長-院貳] 制에서 副院長制를 채택하였고 鄉院長 1人, 都有司 1人, 別有司1人, 掌議 6人으로 院任構造가 變化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蔚山 鷗江書院도 建立과 賜額을 받은 時期가 南人執權期임을 통해서 볼때 南人係의 성격이 강한 書院이지만 鷗江書院 역시 地域士林들의 公論이 中央政治圈과 연결되어 書院의 經營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書院의 院任構造는 初期에 「院長-有司」 制에서 肅宗11년에 「院長-都有司-掌議」 제도가 채택되었고 英祖(1728) 때 掌議 대신 公事員으로 변경된 院任構造가 보인다. 鷗江書院이 가지는 특색은 時代的 變移에 따라 鄉村社會의 支配를위한 機構로서 書院의 建立이 이루어 졌지만 鄉校에 入錄된 有力家門 및 地域士林들이 書院을 經營하여 감에따라 書院이 가지

는 특성보다 鄉校의 經營方針과 書院의 經營 構造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앞장에서 본 勿溪書院과 같이 同族中의 先賢을 配享하므로서 鄉村社會에서 在地的 基盤을 구축해 갔던 泰巖書院은 宜寧地域의 대표적 門中書院이다. 同族相互間的 結束과 地域 鄉士林들과의 交流를 통해 在地的 基盤을 구축해 갔던 門中書院이 가지는 一般的 特色을 가진 泰巖書院은 全羅道 地域의 潭陽田氏가 宜寧地域에 移居해 오면서 鄉村社會에서 在地的基盤을 형성해갔다고 생각되어진다. 泰巖書院의 院任構造는 畚行審帳의 記錄을 통해서보면 「院長-掌議-別有司」體制로 書院이 운영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宜寧地域 書院의 「院長-有司」체제와는 다른 掌議制를 채택하고 있는 特色을 지니고 있다. 또한 書院의 經營은 祇謁錄 分析을 통해서 潭陽田氏보다 地域鄉士林에 의해서 運營되어지는 일반적 門中書院의 特色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朋黨政治로부터 勢道政治로 變遷해간 후 地域鄉士林들의 實態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그렇게 흔하지 않다. 宜寧地域의 宜陽書院이 소장하고 있는 學稼亭契案에 나타나는 鄉儒案과 道儒案을 통해 地域士林들의 公論과 함께 했던 朋黨政治 構造를 대신한 勢道政治기의 地域士林들의 實態를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勢道政治後 地域士林과 中央政界와의 關係가 斷絶되자 地域 鄉士林들은 자신들이 유지해 왔던 兩班의 地位保障을 위해 書院의 建立, 書院의 重建에 참여하여 鄉村社會에서의 鄉權을 가지려 하였다. 이러한 現狀은 學稼亭契案의 鄉儒案에 나타난 宜寧地域內的 鄉儒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음을 통해 확인될 수 있다.

둘째, 道儒案에 나타난 地域士林들은 尙州圈의 陝川地域의 鄉儒가 137명, 晋州圈이 180명, 慶州圈이 176명이 참여하고 있음을 볼때 門中書院의 창건을 위함보다는 地域鄉儒들의 鄉村에서의 實勢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파악된다.

다음 尋院人士에 관하여 나타난 결과는 慶尙南道 一圓의 書院중 中央政界와 關係를 가졌다고 생각되어지는 德川書院, 濫溪書院 및 賜額書院의 尋院錄이 유실되고 남아 있지 않음은 仁祖反正後 政治的 문제와 關係되어 있는 것같이 생각되어진다. 현재 資料를 保管하고 있는 書院은 門中書院인 勿溪書院, 光山書院, 泰巖書院의 尋院錄이 발견되었을 뿐이다.

원래 尋院錄은 地域士林들의 活動과 書院이 가지고 있는 政治的 성격 또한 書院의 經營과 關係한 重要한 人的資源을 파악할 수 있는 資料이다.

우선 勿溪書院의 尋院錄을 보면 英祖(1726~1737)때 까지의 尋院人士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이 시기는 老論, 少論이 政治圈의 變化를 이루어 가는 시기이다.

勿溪書院에 配享된 인물들이 南冥, 退溪, 栗谷門人등으로 다양한 活動범위를 가진 先賢이기 때문에 禮訪人士가 전 지역에 걸쳐 고르게 分布되어 있다.

특히 成氏門中은 外後裔,外裔孫으로 표기된 現職高官의 禮訪은 勿溪書院이 가진 鄉村社會에서의 위치를 확인 할 수 있다.

光山書院의 尋院錄은 純祖(1803-1821)대의 記錄만 남아 있는데, 그 특색은 禮訪者의 分布가 嶺南地域 전체에 걸친 鄉儒林들의 禮訪이란 점이며 주로 後人이라 표기된 禮訪者의 수가 전체 92%로 나타남은 光山書院이 門中書院이면서 地域 士林들에 의해 經營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泰巖書院의 尋院錄은 正祖(1790)~哲宗(1853)대 걸쳐 작성된 것으로 勢道政治期에 사사로이 건립된 門中書院이 가지는 특색을 나타내주고 있다.

즉 尋院錄상에 나타난 禮訪인사들의 분포가 既存의 土着 鄉士林 들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地域土族들이 書院建立을 통해 鄉村 士林과의 交流를 통해 鄉村 支配勢力으로 정착하는 과정을 나타내 준다는 것이다. 특기할것은 尋院錄에 나타나는 新鄉들의 진출과 地域書院이 가지는 갈등의 단면을 보여주는 실례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렇게 볼때 慶尙南道 지역의 書院은 賜額書院이나, 또는 門中書院, 鄉人에 의해서 建立된 書院등으로 分布되어 있지만 他地域(慶北,忠淸, 全羅, 京畿)의 書院과 같이 朋黨政治와 연관되어 書院의 建立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과, 書院을 중심으로 활동한 地域士林들이 가지는 성격을 中小地主層으로서 鄉村社會에서 兩班으로서의 身分을 保障받고 鄉村社會의 支配階層으로 存立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